



정보통신부

‘피싱’ 피해방지 대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 금융정보 유출사기 수법인 ‘피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피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에 온라인 피싱 신고창구를 개설해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몰, 포털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피싱 피해가 신고될 경우에는 피싱 발송지 주소를 추적해 검·경찰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고, ISP(인터넷제공업체) 등에 동메일의 수신 차단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피싱에 대한 이해를 돋고 경각

심을 높이기 위해 ‘피싱 식별 및 대응 안내문’을 마련해 공공장소를 통해 집중 안내하고 때에 따라 예경보 발령을 통해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웹사이트가 피싱의 위장 서버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장 서버로 이용된 국내 웹사이트를 확인해 해킹에 이용된 취약점을 보완조치하고,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웹호스팅업체 등 1000여개 기업의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정보보호 도우미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금감원, 검·경찰 등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APWG의 정식회원으로 가입, 피싱사고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대책 마련에 공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이 가지는 보안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IT솔루션 박람회

산업자원부는 지역중소기업의 자율적이고 성공적인 IT화 추진 도모를 위한 ‘2004 중소기업 IT화 솔루션 페어’를 대구 EXCO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세 번째로 열리는 중소기업 종합 박람회로, IT화 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IT 품질을 조성하고, 지역간 균형적 IT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e-비지니스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대표적 IT기업체 75개사와 대구경북지역 6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CERE) 및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중소기업 IT화 성공 사례 발표회를 통해 성공적인 구축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IT솔루션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와 IT업체의 우수상품 판매의 장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의 IT촉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보화 사무기기 표준화 세미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외 유명 전문가를 초빙, “정보화 사무기기 국제 표준화 세미나를 COEX (아셈홀 208호)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무기기 인쇄물의 인쇄상태 · 품질 측정방법 등에 대한 기술 및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해외 유명 전문가 4인의 초청강연이 진행되며,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잉크 · 토너와 같은 소모품의 수명결정 방법, 기준 ·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실제 생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복사기 품질개선방안 및 기술적인 문제해결방법 등에 대해 초청 강연자와 국내 관련 전문가들간의 심도 깊은 토론회도 이루어졌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사무기기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소모품 수명 신뢰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사무기기 사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철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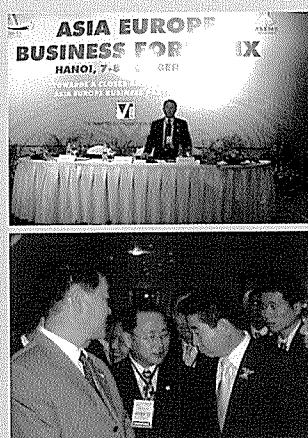
경영혁신 ERP프로젝트 추진

연말 시스템통합(SI)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406억원 규모의 철도청 전사적자원관리(ERP)프로젝트 수주전이 SI 업계 3파전으로 압축됐다. 철도청 본청과 전국 산하기관의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이 프로젝트는 하반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단일 ERP사업 가운데 최

대규모다. 철도청이 1일 ERP프로젝트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KT와 삼성 SDS, LG CNS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 ERP 솔루션 공급업체를 제외한 다른 분야 컨소시엄 중복 참여를 배제한다는 철도청의 방침에 따라 삼성SDS 컨소시엄과 LG CNS 컨소시엄은 SAP제품을, KT는 오리클제품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3개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하여 기술평가(점수비중 80%)를 통과(기준점수 70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20%)를 실시해 우선 협상대상 컨소시엄을 가리고 12월 15일부터 2년간의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ICA 조성갑 원장, ASEM 정상회의 정보통신분과 의장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조성갑 원장은 10월 6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M 정상회의에서 제9차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SBF)에 정보통신분과 의장으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ASEM 회원국 주요 국별대표 40여명이 참여한 정보통신분과 포럼에서 의장국인 한국은 회원국간 정보통신정책 및 기술표준에 대한 정기회의 개최, 기술유출방지 대책, 전자 정부 등의 공공 Application 개발 협력사항, 적정 수준의 IT 서비스 가격 조정 등의 4개

협력의제를 제안하였다. 본 의제는 나머지 6개 산업분야 분과회의 결과와 함께 이번 ASEM 정상회의에 제안되었다.

ESG코리아 MS, ERP솔루션 국내시장 확대

マイクロソフト(MS)의 전사적자원관리(ERP)솔루션이 국내 시장에 정착되기 시작했다. MS의 ERP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솔루션그룹코리아(ESG코리아, 대표 김미애)는 올해 국내시장에서 성일텔레콤 등 4개의 사이트를 구축했으며, 현재 2개의 중견기업과 솔루션 공급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라이선스 금액 50% 할인 행사를 펼쳐 20여개사 기업들과 ERP 구축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MS는 지난해 5개의 기업에 ERP를 구축한데 이어 높은 비용 때문에 ERP 구축을 망설여온 기업들에게 높은 관심을 끌어내는 마케팅 행사를 통해 올 해 최소 10개의 준거사이트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견·중소기업(SMB) 시장에서 SAP, 오라클 등의 외국계 기업은 물론 영림원 등 국내 기업들과도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MS는 기업용 솔루션 확대 전략에 따라 지난 2002년 ERP업체인 그레이트플레이스와 네비전을 인수해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ESG코리아가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전산원 보육시설 정보화 지원 나서

한국전산원은 대전광역시와 ‘보육시설 운영관리 ASP 서비스 구축사업’에 관한 포괄적 사업협정을 체결하고 놀이방·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정보화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엘리온정보기술이 2003년 정보통신부의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통해 개발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ASP 서비스’의 기술을 대전시청에 이전하고 교사 및 원생 관리시스템,

보육교사와 학부모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시스템, 해당 보육시설 홈페이지·개설 및 관리 시스템, 보육행정에 필요한 서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대전시내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50인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으로 회계관리와 원생관리 등 전반적인 보육시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보육시설 컴퓨터 보급사업과 영유아 및 교사를 위한 e러닝 서비스 등을 통해 한결 나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정보통신중소기업 賞’ 공모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IT중소벤처업계의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올해의 정보통신중소기업 賞’ 행사를 주관한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정보통신부 지정 유망중소 정보통신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1월8일부터 22일까지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수상업체들은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이 수여되고,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정보통신부 주관 사업 참여시 우대, IT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해당기업 및 제품 홍보, 엔젤크럽 및 투자조합 투자 추천 등의 수혜를 받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안전자우편용 SEED암호, IETF서 국제표준 채택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자체 개발한 ‘보안전자우편에서의 메시지 암호화를 위한 SEED 암호 사용표준’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표준단체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RFC 표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IETF 심의를 통과한 표준은 보안 전자메일에서 전송되는 메시지의 암호화를 위해 국내표준 블록암호알고리즘인 SE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이다. SEED는 1999년 2월 KISA가 개발한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으로, 동년 9월 정보통신단체표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널리 이용되고 인정받고 있다. KISA는 이외에도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 표준(안)’을 개발하여 미국 국가표준기술원과 공동으로 표준화를 추진중이며 이 기술은 2005년 초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한편 KISA는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 표준기구에서의 활동을 늘리는 등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리눅스용 SW스트리밍엔진’ 개발

PC에 리눅스SW를 설치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해 리눅스SW를 이용할 수 있는 ‘리눅스용 SW스트리밍엔진’이 국내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임주환) 온디맨드서비스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솔루션은 리눅스사용자의 응용SW 작업을 감시하다가 필요에 따라 서버로부터 실행에 필요한 SW코드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리눅스용 SW를 리눅스 데스크톱에 설치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설치된 리

눅스SW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통해 공개SW 개발업체들도 개발한 SW를 이용자들에게 쉽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ETRI는 내년부터 광주 FTTH 초고속시 범망을 통해 온디맨드 방식으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 1000명 동시사용자 규모로 100종류의 각종 공개SW가 ‘리눅스용 SW스트리밍기술’에 탑재되어 제공된다.

ITSM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급부상

IT서비스관리(ITSM)는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 네트워크 · 보안 등과 같이 영역별로 따로 이뤄졌던 IT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서비스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IT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KTF, LG텔레콤, LG건설, 우리은행, 외한은행, 대법원 등이 ITSM을 적용하기 위하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IT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은 물론 한국HP나 한국CA와 같은 솔루션 기업들도 내년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 기대하며 시장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ITSM을 위한 세계 표준화의 참조 모델인 ITIL(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을 관장하는 ITSM포럼의 한국 지부인 사단법인 IT서

비스관리포럼(회장 황경태 교수)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한국MS 태블릿 PC 에디션 2005 발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펜기능과 한글 필기체 인식률이 크게 강화된 ‘윈도 XP 태블릿 PC 에디션 2005’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다양한 정보에서 우선순위 관리가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협업적인 사무실 환경과 실질적인 공동작업,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 관리 등 개인, 팀, 조직으로 이어지는 3개 부분을 포괄 한다. 또한 MS의 차세대 기업용 인스턴트 메신저인 ‘이스탄불’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탄불은 텍스트는 물론 음성, 비디오를 동시에 전달해 다중전화회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한국MS는 그동안 오피스 시스템의 특장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오피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히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오피스 시스템 솔루션 빌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핸디소프트 한국무역협회 BPM 공급

핸디소프트(대표 김규동)는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의 업무프로세스관리

(BP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가 추진 중인 'KITA 정보화 사업' 가운데 전시회, 사절단, 상담회, 교육연수, 설명회 등의 핵심전력사업에 대해 전 과정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BPM 구축을 통해 업무처리속도 개선과 8만 여개 회원사에 대한 대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BPM을 도입하는 정부 공공기관들이 많아졌고 이미 핸디소프트의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이 많은 만큼, 핸디소프트는 기존 그룹웨어 구축 사이트를 중심으로 BPM영업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SAP 코리아

'SAP 비즈니스 원' 최신 버전

SAP 코리아(대표이사 한의녕)는 기존 제품의 지원 영역을 확대, MRP(자재 소요량 계획)기능을 추가하여 소규모 제조업체가 사업 계획 수립 기능을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완벽하게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SAP 비즈니스 원'의 최신 버전을 출시했다. 최신 버전에서는 기존의 솔루션에 내장되어 있던 CRM(고객 관계관리)기능을 보완하여 영업, 서비스 및 기타 대고객 활동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으며 기업이 비즈니스의 추가 혹은 변경에 따라 솔루션을 보다 쉽게 맞춤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기존 고객은 SAP 비즈니스 원 표준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 최신 버전 업그레이

드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SAP 비즈니스 원 2004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sap.com/smb/businesson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솔제지

전사적자원관리(ERP) 가동

한솔제지가 전사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한솔제지는 그간 50회에 걸친 임원진 실무위원회를 비롯 1만 6000시간 이상의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ERP 정착에 대비하여 변화 관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한솔 텔레컴은 이

프로젝트에서 영업, 생산, 회계, 구매 등 7개 분야 ERP 모듈 개발은 물론 한솔제지 5개 공장의 생산공정시스템(MES)를 통합 구축하고 ERP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작업을 완료했다. 한솔제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재무회계, 관리회계, 영업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자금관리, 투자관리, 자산관리 모듈 및 비즈니스 정보 웨어하우스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 간 프로세스혁신을 수행하고 10월부터 ERP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한솔제지는 ERP 효과 극대화를 위한 안정적 활용과 함께 IT 혁신을 포함한 경영혁신으로 한솔제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정보통신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계약 체결



쌍용정보통신(대표 강복수)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2006년 카타르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원회와 590억원 규모의 '제 15회 도하 아시안게임 대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쌍용정보통신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 오는 2006년 6월까지 대회관리시스템, 경기결과시스템, 경기지원시스템, 인터넷정보시스템, 패밀리정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05년 '서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6개 시스템을 시범 운용, 안정화 기간을 거쳐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승실전산원 각종 정보화 교육 실시

승실 전산원은 노동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재취직 교육 및 현재 고용보험 사업장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79년 개원하여 25해를 맞이하는 승실 전산원은 단일기관으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내 최대 전문가 인력 양성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보과, 인터넷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과, e-비즈니스과, 디지털광고디자인과 등을 두고 있으며 각종 정보화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정보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엠투소프트 '리포트 디자이너 4.0' 출시

엠투소프트는 웹리포팅툴인 '리포트 디자이너 4.0'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에는 각종 패키지 솔루션과의 연동 및 보안 기능, 모바일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특히 보고서 개발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다차원 데이터분석 툴에서 제공하는 Drill Up&Down 및 엑셀, 아래한글, PDF 저장 등 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엠투소프트는 밝혔다. 또한 리포트 디자이너 4.0은 고객의 환경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여 구성

훼미리마트 - KT 전략적 제휴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휴는 네스팟 스윙폰 확산에 따라 고객 사용 가능 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도모하고, U-Korea가 지향하는 유무선통합 통신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사양을 제공하여 맞춤형 리포팅툴을 표방하고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 조회시 편리한 툴 고정기능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욱 편리해졌다.

(주)새롬정보시스템 eMATE Scrap V3.0 출시

새롬정보시스템에서는 웹 서버의 문서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 PC에 저장 및 분류,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인 eMATE Scrap을 메일 작성 및 발

훼미리마트와 KT는 전국의 2천 900여 개소의 훼미리마트 매장에 네스팟존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네스팟 존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까운 훼미리마트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네스팟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금번의 전략적 제휴로 KT는 기존의 1만 2천여개소의 네스팟 존에 2천 900여 개소를 추가하게 되었으며 훼미리마트는 기본적인 상품 판매 외에 택배서비스, 공공요금수납, 핸드폰 충전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며 추구하고 있는 '우리동네 Living Station'의 가치를 더욱

송 기능과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V3.0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eMATE Scrap V3.0은 서버의 메일과 문서를 Local PC에 원하는 폴더로 분류하여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되어있는 문서를 Drag & Drop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분류 할 수 있으며, 저장된 문서의 백업 및 손쉬운 복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 외에 인쇄기능, 메일작성, 편집, 수정된 메일 저장, 회신, 전체회신, 전달 등의 다양한 메일기능, POP3 메일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폴더로 분류하여 가져오게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